

2020년 2월 7일 상월선원 무문관 문을 열고 나오는 자승 스님.

“
부처님은 평생 최선을 다해
중생의 이익을 위해
법을 설했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전법하라’입니다.
전법없는 불교는
죽어가는 불교입니다.
”

‘부처님 법 전합시다’ 韓불교 화두 남기다


자승 스님이 지난 2월 10일 인도순례 시작지점인 초전법륜지서 법문을 하고 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부처님을 품에 안고 녹야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인도순례 회향식에서 자승 스님이 입장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창립식에서 자승 스님과 사부대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승 스님과 함께한 수미산원정대 제1기 수계식 · 졸업법회 및 2기 입학식.


자승 스님이 고운사 마음방생 평화순례에서 순례자들과 함께 걷고 있다.


2020년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만행결사 자비순례에서 회주 자승 스님과 결사대중이 순례를 하고 있다.